

'상상된 경계들' 작품 설치 시작

2018광주비엔날레 한달 앞으로

43개국 165명 참여 '66일 축제' 문화전당·옛 국군광주병원 등서 9월 6일 개막식 이이남 미디어 퍼포먼스

8일 2018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까지)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이 처음으로 설치되며 개막식과 심포지엄 등 부대 행사의 내용도 확정됐다. 또 홍보관 설치 등 성공 비엔날레를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해 경계에 대한 이슈를 풀어낸다. 전시 장소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를 비롯해 옛 국군광주병원 등 광주의 역사적 장소를 아우른다. 제 12회 광주비엔날레는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8일 광주비엔날레 2전시실에서 그리티아 가워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섹션에 선보일 작품으로 해포식을 갖는다. 이날 전시장에 설치될 작품은 방글라데시 작가 무넬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Seeds Shall Set Us Free)다. 30여 개 프린트로 구성된 작품은 쌀을 활용한 평면으로 방글라데시 농촌사회의 삶과 문화생활의 반영이자 아시아 근현대사 속에서 진행됐던 식민지의 아픔을 담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반입이 시작된 작품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을 할 예정이며 전시관 공간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각 섹션 담당자중 클라라 김은 18일까지, 크리스틴 Y. 김도 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면서 작품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9월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특별프로젝트로 진행되



8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시장에 첫 작품이 설치되는 등 행사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은 재단이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중인 홍보관.

면서 기존 공연 중심의 개막식 연출 대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신작 미디어 프로젝트 퍼포먼스로 기획됐다.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전시 주제를 재해석, 인간의 상상으로 형성된 경계를 넘는 예술의 역할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 벽면을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해 음악과 퍼포먼스, 미디어아트와 융·복합 형식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개관이벤트, 전시 관람으로 구성되며 이 작가의 작품은 행사 기간 중 전시관에서 디지털 모니터 작품으로 관람 가능하다.

9월 7-8일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은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철학자 슬라브에 지젝 등이 참여한 GB토크 등을 통해 추구해온 동시대 접매한 담론 형성의 장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랄프 루고프(2019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의 기조발제를 하며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등이 참여해 광주의 역사적 장소에서 진행했던 신작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GB 커미션: 큐레이터 및 작가 토크'도 펼쳐진다. 그밖에 각 섹션별 큐레이터와 참여 작

가와의 토크도 관객들을 만난다. 홍보 활동도 본격화됐다. 재단은 2018광주비엔날레를 알리고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4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와 홍보를 진행한다. 포토펙터를 활용한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업로드를 하면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 2018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을 오는 16일까지 운영, '상상된 경계들' 주제를 반영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해 묻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포스트잇에 경계에 대한 단상을 적고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경계들을 해시태그로 작성해 글을 올린 뒤 광주비엔날레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경품은 코오롱 모터스 후원의 BMW 1박2일 시승권(2명)과 2018광주비엔날레 입장권(20명·1인 2매) 등이며 20일 추첨을 통해 발표한다. 문의 062-608-42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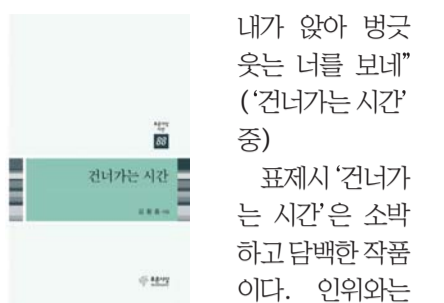
담백하고 정밀하게 자연을 보다

장흥 출신 김황흠 두 번째 시집 '건너가는 시간' 나와

"저를 내내 강어귀에서 물오리들 푸드득거리는 날갯짓을 보며 지냈다. 한겨울 물오리 때 소리만 그득하던 찬바람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온 봄. 마른 역새 무더기를 휘젓던 뱀새들의 겨우살이와 왜가리 때, 외발로 서서 버티던 살얼음이 녹고, 드디어 새로운 물결로 세상이 푸르다." 장흥 출신 김황흠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건너가는 시간' (푸른사상)이 발간됐다.

첫 시집 '스눈'에서 시적 감성이 내재화된 작품을 선보였던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도 동일한 어조로 대상을 노래한다. 구체적인 시어와 정밀한 묘사는 단순하면서도 절감한다. 30대 초반부터 영산강 지류와 드물고 이 있는 광주 근교에서 농사를 지어온 시인에게 시는 온몸과 가슴으로 낚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바람은 서늘한 기운을 드리우고/ 소금쟁이 사뿐히 밟고 간 조용한 파문/ 왜가리 한 마리 모르쇠 내려앉은 서술/ 뒤스럭거리는 물살 소리를 읽는/ 시간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 자리/ 네 옆에 다른



내가 앉아 병긱 웃는 너를 보네" ('건너가는 시간' 중) 표제시 '건너가는 시간'은 소박하고 담백한 작품이다. 인위와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심상이 담겨 있어 여운을 준다. 시인에게 시가 자연 그 자체이자 삶으로 치환되는 이유다.

김규성 시인은 해설에서 "그는 판에 박은 농민의 애환이나 생명성의 구조적 반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연이나 사물과의 순결하고 내밀한 대화를 통해 직관의 지혜와 때 묻지 않은 언어를 발굴해 닦아 놓을 따름이다"며 "그러기에 기존의 농촌 시에 비해 그의 시는 신선한 보편성을 확보한다"고 평한다.

한편 김황흠 시인은 한국방송대 국문과를 수료했으며 2008년 '작가'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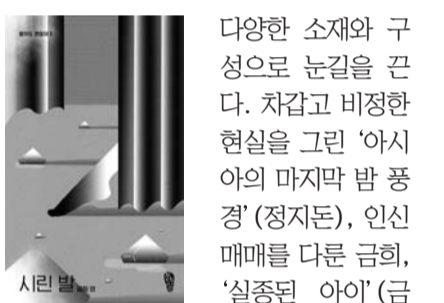
짧은 추리소설로 더위 날려요

문학상 수상 작가들 엮편소설집 '시린 발'

조선족출신 소설가로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금희, 문학동네 작가상과 자음과 모음문학상을 수상한 안보윤,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우승미, 문학동네 젊은작가상과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이영훈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소설가들이 '추리소설'을 테마로 엮편소설집을 펴냈다.

엮편소설(藥膏小說)은 단편소설보다도 짧은 소설로, 나뭇잎에 빗댄 용어다. 이번에 출판사 '걷는사람'이 발간한 '시린 발'은 작품 길이를 초단편으로 구성해 독자와의 폭넓게 소통을 해온 소설 시리즈 '짧아도 괜찮아'의 세 번째 작품집이다. 특히 추리소설을 무은 것은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파격적 기법을 통해 강렬한 이야기를 선사하고자 하는 의도다.

작품집에는 언급한 작가들 외에도 독특한 스타일로 첫 소설집 출간을 앞둔 임승훈, 각종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단한 전아라, 젊은작가상과 문지문학상 수상작가 정지돈, 한계레문학상을 수상한 주원규, 환상과 서사를 마술적으로 그려내는 작가 채현선 등이 포함돼 있다. '추리'를 테마로 한 소설집답게 작품은



다양한 소재와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그린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정지돈), 인신매매를 다룬 금희, '실종된 아이' (금희), 술집 옆 골목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을 다룬 '공교로운 사람들' (안보윤) 등 저마다 개성이 발휘된 소설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에게도 이번 시도는 유의미한 도전이지만 신선한 주제와 소재, 완성도 높은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사를 쓴 신철규 시인은 "이 세계와 인간의 어두운 곳을 탐색하는 추리소설은 균중 속에 숨은 악과 고독,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읽어낸다"며 "이 책에 실린 소설들에서 차갑고도 비정한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현실의 일부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함으로써 이 세계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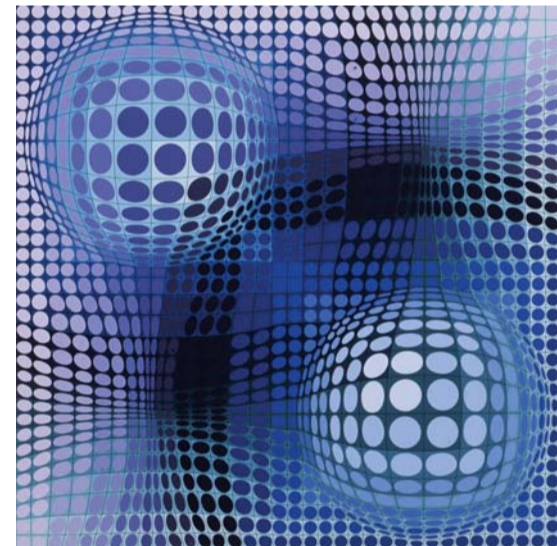
헝가리 바자렐리·곽덕준 작품 등 전시

우제길미술관 이달까지 소장품전

우제길미술관 기획전시 '2018 소장품전'이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이 소장한 200여점 중 헝가리 옵아트 작가 바자렐리의 작품을 비롯해 정영렬, 오세영, 최재창, 이은노, 곽덕준, 유승우, 박흥수, 우제길, 나점석, 이규환, 김진석, 오이량, 양수아, 김영길, 파스칼, 박명규, 김익모, 하인두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들의 철학과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판화,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다.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바자렐리의 작품이다. 바자렐리의 작품으로 지어진 헝가리 '바자렐리 미술관'을 방문했던 우제길·김자순 관장 부부는 그의 작품과 미술관에 마음을 빼앗겼고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 2점을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푸른색을 배경으로 한 '구조 A'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2-2321. /김미은 기자 mekim@



바자렐리 작 '구조 A'

광주시립오페라단

전용 연습실 생겼다

10일 문예회관에서 개소식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오는 10일 오후 1시 20분 시립오페라단 사무실 및 연습실 개소식을 갖는다.

지난해 9월 창단한 이후 독립적인 연습실을 갖지 못했던 시립오페라단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위치해 있던 구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해 250㎡ 규모의 연습실, 자료실과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을 마련했다.

시립오페라단은 지난해 9월 창단이후 '오페라 갈라'를 시작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오페라의 화려함과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하며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오페라단의 '헨젤과 그레텔', 4월에는 베르디의 '아이다'를 전석매진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시립오페라단의 차기 공연은 오는 9월 7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광주 솔리스트앙상블'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